

# 건축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에 지은 집 한 채

이용한의 《옛집기행》

글 | 한필원

“언제는 초가지붕을 없애라 난리더니 이제 와서 다시 초가집을 짓고 살라고?” 민속마을에 가면 주민들에게 꼭 듣는 말이다. 초가는 동네복이 되고 말았다. 전 근대시기에 우리의 보편적인 주택형식이었던 초가가 근대시기에 가난과 후진성의 상징으로 극복의 대상이 되더니 탈근대시기라는 오늘날에는 복원의 대상이 되었다. 민속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헛갈릴 수밖에 없는 것은 단지 그들이 이 세 시기를 모두 거쳐왔다는 점 때문이다. 아무튼 초가나 초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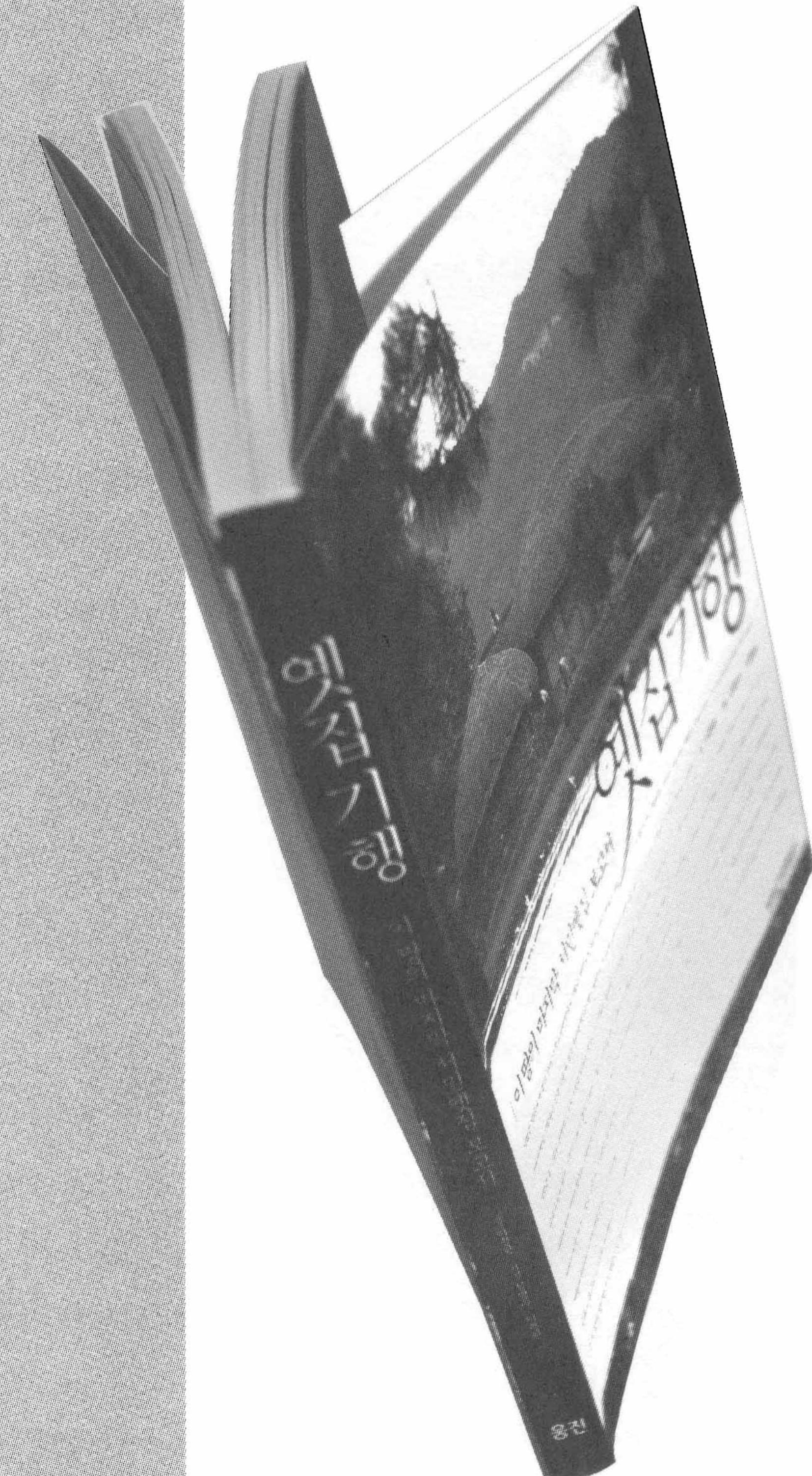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인류 보편의 정서, 곧 노스탤지어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아쉬움이 더 커 보인다. 우리 민족이 복고적이라서? 아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에 유례없이 자신의 과거를 짧은 시간에 무리하게 지워나간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땅의 마지막 서민옛집 보고서’라는 부제가 붙은 《옛집기행》은 하회마을 같이 잘 알려진 곳만이 아니라 국토의 곳곳에 있는 오래된(또는 오래된 방식으로 지은) 집들을 소개하고 있다. 1970년대 시작된 새마을운동 아래 무슨무슨 사업들이 억지로 밀쳐버린 우리 주거문화의 현장을 오래된 유적처럼 어렵게 살아남은 집들을 통해 재구성하는 다큐멘터리 형식을 띠고 있다.

책은 전국 각지에 숨어있는 집들을 가볍게 스케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들이 모여 침전시킨 생각은 소수의 상류주택으로 우리의 전통 주거문화를 논할 수 없다는 목적함으로 다가온다. 책을 읽고 나면, 몇몇 민속마을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꽂피웠던 산업화 이전의 우리 주거문화를 머릿 속에 그릴 수 있게 된다. 이런 면에서 ‘옛집기행’은 그간 건축계나 문화계가 온 연 중 소외시켜온 전통민가에 대한 이해 없이 우리 주거문화를 논하는 것은 오류일 뿐임을 지적하는 날카로운 비평서이기도 하다.(저자가 애써 선택한 ‘옛집’이라는 말이 초가 등 전통 서민주택의 종말을 예견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에서는 옛집이라는 말 대신 전통민가라는 말을 쓰기로 한다.)

이미 남다른 애정으로 국토를 누벼온 이용한 시인과 심병우 사진가는 이 책에서 강원도 위쪽 오대산에서부터 남으로 제주도까지 이동하면서 저인망으로 바다바닥을 훑듯 조근조근 편안한 문체로 전통민가의 풍경을 잘 그려내고 있다. 또한 발로 책을 쓰는 것의 어려움을 잘 아는 저자답게 그때그때 인용한 글들의 출전을 충실히 달고 있다. 이렇게 책 내용이 앞선 연구자들의 성과를 포괄함으로써 ‘내가 보았는데…’식의 일방향성으로 흐르지 않고 객관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옛집기행’에서 사진은 양적으로 글과 엇비슷한 비중을 차지한다. 등잔과 같은 소소한 세간에서부터 집이 자리잡은 자연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케일의 사진들이 전해주는 생생함으로 전통민가의 특징을 주로 재료의 자연성에서 찾는 저자의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새로 복원된 어색한 몇 집을



《옛집기행》

이용한 글 | 심병우·이용한 사진 | 웅진지식하우스 | 282쪽 | 값 17,000원

제외하면 사진에 담긴 집들은 아름답다.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졌으니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않을 리 없고, 기술적, 경제적 조건의 제한 속에서 만들었기에 절제의 아름다움이 얻어졌다. 결국 이 책은 글과 사진으로 우리에게 집이 아름다울 수 있는 조건을 알려준다. 또한, 불필요하게 장식을 하고 필요 이상으로 굵은 부재를 사용한 집에서는 그런 아름다움이 느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일깨워준다.

내 경험으로 볼 때 집에 대한 대중적인 글쓰기는 참 어렵다. 집에 대한 대화도 쉽지 않다. 여전히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에 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좋은 집, 아름다운 집에 대한 생각도 서로 다르다. 이것이 이 시대에 건축가들이 좋은 집을 만들어내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내 생각에, 건축의 비전문가인 저자가 쓴 《옛집기행》이 가진 가장 큰 미덕은 전문가나 일반인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를 모두가 쉽게 읽을 수 있게 썼다는 데 있다. 이 책을 통해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우리 주거건축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다면 그것만도 큰 성과라고 본다. 물론 나같이 건축전문가가 보기에는 용어의 선택이 다소 부적합해 보이는 곳도 있다. 책에서 사용된 ‘가구법架構法’, ‘봉당’ 등의 용어가 건축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과 좀 다른 것으로 안다. 우리 고유의 주거문화를 논하고 그것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려면 무엇보다도 일반에 소통되는 건축용어가 속히 정착되도록 해야 함을 느낀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고인돌이 기둥을 받치고 있던 영광 효동마을 정씨 할머니댁의 초가와 오늘날 서민의 집인 원룸, 다세대주택, 또는 다른 모양의 양옥을 비교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잊은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스스로 애써 자신의 환경을 만든 전통민가의 거주자들, 곧 우리의 조상들, 그리고 어디선가 주어진 집에서 살며 자신의 거주환경을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조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현

대의 우리, 그들 중 누가 더 행복한 것인가 묻게 될 것 같다.

《옛집기행》에 나오는 집들이 지금 도시에 지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것들 모두가 농촌의 바로 그 자리에서 유지될 당위성까지 잃은 것은 아니다. 이 책이 무엇보다도 그런 오래된 집에서 살아온 이들에게 자부심을 되찾아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책이 시도 때도 없이 ‘옛집’을 그대로 만들려는 지금의 현상을 부추기거나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과거의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다면 어디서나 옛 것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려는 무모함을 버리게 될 것이다. 과거로 돌아가려고 과거를 배우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서평을 쓴다고 출판사에서 책을 보내올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배달사고가 났는지 책이 오지 않아 할 수 없이(?) 서점에 가서 내 돈을 주고 책을 샀다. 책을 다 읽고 나니 그러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다리품을 팔아 애써 쓴 책을 가만히 앉아서 받는다는 것은 꼭 미안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

#### ● 이 글을 쓴 한필원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농촌주택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전통마을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부터 1996년까지 중국의 청화대학 淸華大學 건축학원에서 연구하였으며,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의 뉴욕주립대학에서 방문교수로 있었다. 1996년부터 한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로 있으면서 아시아건축연구실(Asian Tradition in Architecture)을 이끌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한국의 전통마을을 가다》(전 2권) 《주거의 문화적 의미》(공저) 《자식의 최전선》(공저) 《한국의 전통생태학》(공저) 등이 있다. 홈페이지 [ata.hannam.ac.kr](http://ata.hannam.ac.kr)